

소아 뇌전증 ‘드라베 증후군’ 치료 새 길 열렸다

GIST 안진희 교수 연구팀 신약 후보물질 개발 동물 모델서 발작 억제 효과·초기 안전성 확인

생후 1년 이내 발병하는 희귀 소아 뇌전증으로, 반복적인 경련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드라베 증후군(Severe Myoclonic Epilepsy of Infancy, SMEI)’의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4일 “화학 및 안진희 교수와 한국화학연구원(KRICT) 배명애·김기영 박사 공동연구팀이 소아 난치성 뇌전증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저분자 신약 후보 물질 ‘GM-91466’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저분자 신약 후보 물질은 분자 크기가 작은 화학 합성 물질로, 세포 안으로 잘 침투해 특정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어 먹는 약으로 개발하기에 유리한 특징이 있다.

이번 연구는 드라베 증후군의 주요 원인 유전자인 ‘SCN1A 유전자’의 기능 이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진희 교수



황규석 박사



김기영 박사



김동건 박사과정

또 기존 약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화학 구조를 바탕으로 설계·합성한 물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기존 치료제와 구조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화학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된 물질로, 특허 및

후속 신약 개발 확장성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안진희 교수는 “‘GM-91466’은 드라베 증후군의 근본 원인인 SCN1A 유전자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경 회로의 과흥분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의 저분자 후보물질”이라며

“제로투인 생성 효소를 늘려 뇌 신경 신호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기존 약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작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난치성 소아 뇌전증 치료에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드라베 증후군뿐만 아니라 유사한 원리로 발생하는 다양한 신경계 질환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을 열었다”고 밝혔다.

GIST 화학과 안진희 교수와 한국화학연구원 배명애·김기영 박사가 공동 주도하고 GIST 화학과 김동건 박사과정 등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 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김연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의 '2026년 전국 유통·판매 500억원 달성탑 수상' 기념해 법인 관계자들이 순천APC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판매 ‘최우수’

500억원 달성탑 수상·농가소득 증대 기대

순천시는 최근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협중앙회에서 시상하는 ‘2026년 전국 유통·판매 500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시상식은 순천시거점산지유통센터(순천APC)에서 진행됐으며, 순천시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순천농협,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은 순천농협의 출자를 받아 설립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2010년부터 순천시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또 전남 동부권 농산물을 매취·수탁방

식으로 취급하여 공동선별 과정을 거쳐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유통망 확대를 위해 TV 홈쇼핑,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판로를 개척해 왔으며, 매년 배, 단감, 키위 등을 500t 이상 동남아, 일본 등에 수출해 순천농산물의 판로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순천시,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순천농협이 긴밀히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유통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인사

광주시 ◇3급 전보
△통합공향미래도시본부장 소진호 △문화체육실장 황인재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추진단장 전은옥
◇4급 전보
△혁신성장담당관 김남희 △국제교류담당관 장안숙 △비서실장 임대진 △선임비서관 김현숙 △시민소통과장 김영규 △5·18민주과장 박용범 △5·18민주화운동 50주년기획단장 여경희 △AI반도체과장 조현호 △통합기획과장 정소라 △통합지원과장 김대중 △대의협력본부장 정정국 △미래도시기획단장 유충서 △군공향건설단장 김경수

서관 김현숙 △시민소통과장 김영규 △5·18민주과장 박용범 △5·18민주화운동 50주년기획단장 여경희 △AI반도체과장 조현호 △통합기획과장 정소라 △통합지원과장 김대중 △대의협력본부장 정정국 △미래도시기획단장 유충서 △군공향건설단장 김경수

“가장 가치 있는 일...다른 사람 위해 살 수 있는 마인드 배우길”

코코넛, 박남은 후원자 가족과 협약식 아프리카 후원...5개국 매달 10만원씩

광주에 연고로 활동 중인 국제NGO인 사단법인 코코넛(대표 양구진)이 서아프리카 16개국과 컨소시엄을 구축, 스포츠와 인권 인성교육 및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하며 후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남은 후원자 가족은 코코넛을 통해 5개국에 매달 10만원씩 후원한다고 4일 밝혔다.

가봉을 비롯해 세네갈, 중앙공은 박남은 후원자가, 아내인 김현정 후원자는 콩고공화국, 딸인 박세린 학생(고3)은 말리에 각각 후원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코코넛 사무실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박남은 후원자는 “열악한 아프리카를

후원하는 것 같지만, 부메랑이 돼 나에게 돌아오는 행복감이 커서 온 가족이 함께 후원을 시작한 지 오래다”며 “특히 막내 딸인 세린이가 함께 후원하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인드’를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최윤정 상임이사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인드인 것 같다며, 박남은 후원자가 축적해 많은 후원자들이 나누면서 누리는 행복을 맛보게 되길 바란다”며 감사를 표했다.

박남은 후원자 가족이 후원하는 50만원은 매달 각 나라의 계좌로 이체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코코넛 사무실에서 전



박남은 후원자 가족은 최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코코넛 사무실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박남은 후원자, 딸 박세린, 아내 김현정 후원자)

달하고 있다.

컨소시엄을 맺은 서아프리카 16개국은 감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가봉, 말리, 부르키나파소,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시에라리온, 베냉, 기니, 로는 가나, 토고,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라이베리아 등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전남생명농업대학 개강...친환경·AI 농업인재 육성 본격화

50명 선발...현장 중심 교육 미래 농업 전문경영인 양성

전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농업기술원 청년창업타운에서 ‘2026학년도 전남생명농업대학’ 입학식을 열고 미래 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에 본격 나섰다.

이날 입학식에는 2026학년도 신입생과 대학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교육 과정의 시작을 함께했다.

전남생명농업대학은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 환경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농업인의 경영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높여 미래농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친환경농업 과정과 AI·농산물 마케팅 과정 등 2개 과정에 총 50명의 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농업기술원 청년창업타운에서 ‘2026학년도 전남생명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도농업기술원

육생이 선발됐다.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과정별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AI·농산물마케팅 과정은 디지털 기반 유통 환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산물 홍보와 온라인 마케팅 전략,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대응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AI·농산물마케팅 과정은 디지털 기반 유통 환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산물 홍보와 온라인 마케팅 전략,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업 현장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대한적십자사 전문 강사를 초빙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CPR) 실습 교육이 마련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일거양이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 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물레나디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 국차매에광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지원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1월 17일)

48년생 주변에 아랑과 덕을 베풀어야 한다
60년생 사업상의 많은 이익이 생길 것이다
72년생 어릴 때의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다
84년생 좋은 일로 집을 떠나 이동하게 될 것
96년생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다

51년생 협력자 방언이 있으니 준비하라
63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를 발휘
75년생 보이지 않는 손실이 일어날 징조
87년생 겸손한 자세라면 성공을 거둘 것이다
99년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54년생 문서를 주고받을 좋은 운
66년생 고집대로 일을 처리하지 마라
78년생 문서 놓고 싸우지만 결국 이긴다
90년생 건문을 확대 시키는 좋은 계기

57년생 두고두고 가슴에 남는 일을 겪는다
69년생 무리하면 현재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
81년생 행운을 가져다준다
93년생 변화 파하면 어려우니 때를 기다려라

49년생 손해 볼수 있으니 너무 앞서 가지 말라
61년생 인복이 있어 많은 이익의 도움을 받을 것
73년생 자녀로 인한 구실수 조심하라
85년생 미련을 버리면 통하게 된다
97년생 경제적 빈곤이 걱정된다

52년생 지인에게 부탁한 일은 기대하지 말라
64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게된다
76년생 패턴을 교체해야 새 국면이 열린다
88년생 절대로 신규는 도모하지 않아야 한다

55년생 문서를 욕심을 부리면 송사까지 확대
67년생 손해가 있어도 뒷사람과 다투지 말라
79년생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라
91년생 여행·출장 등 보류하는게 좋다

58년생 파격적인 발전의 행보로 이어지겠다
70년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길다
82년생 이성과 있었던 미묘한 갈등 해소된다
94년생 구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이성 조심하라

50년생 부탁한 일에 좋은 소식 있을 것이다
62년생 부동산 거래는 손조롭다
74년생 확신하 안 서면 미비점을 찾아라
86년생 금전 지출 분수에 맞게 생활을 하라
98년생 지체를 늦추고 경청하라

53년생 욕심 부린 만큼 손해다
65년생 주변에서 귀하를 음해하고 있다
77년생 부딪칠 것을 처야 불이 일어나게 된다
89년생 평소 바라던 일이 이뤄질 것이다

56년생 부동산 거래하기 전 가족과 상의하라
68년생 득 되는 것이 없는 처지에 있다
80년생 마음을 비우면 어려운 일도 해결된다
92년생 적극적으로 개선해보자

59년생 해결의 실마리를 겨우 찾게 될 것이다
71년생 도처에 귀하의 적들이 있음을 알라
83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로 넘치리라
95년생 크게 손해보지 않으면 믿고 몸통지 말라